

December 2008 | vol.2

- ✓ 목표 혈압치에 빠르게 도달시킵니다¹
- ✓ 혈압 강하효과가 장기간 지속됩니다^{2,3}
- ✓ 다양한 군의 고혈압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⁴

12

소마툴린® 오토젤® 120mg

최소의 2개월 용법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툴린® 오토젤® 60mg, 90mg, 120mg 주 (프리필드) (초산 란레오타이드)

【제품정보】 【성분 함량】 1. 프리필드 시린지 중 / 주성분 : 초산란레오타이드(란레오타이드로서)(별규) 60mg, 90mg, 120mg 【성상】 백색 또는 미백색의 투명한 점성의 용액이 충전된 프리필드 시린지
【효능 효과】 1. 수술 및/또는 방사선치료 등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지 못한 말단비대증 치료 2. 카르시노이드 종양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임상증상의 치료 【용법 용량】 1. 말단비대증 - 처음으로 소마토스타틴 유도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초기 추천용량은 소마툴린 오토젤로서 28일 마다 60mg씩 투여한다. 이전에 소마툴린 피알 주 30mg을 14일마다 1회씩 투여 받은 환자는 초기용량으로 소마툴린 오토젤을 28일마다 1회 60mg을 투여한다. 그리고 소마툴린 피알 주 30mg을 10일마다 1회씩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초기용량으로 소마툴린 오토젤을 28일 마다 1회 90mg을 투여한다. 소마툴린 피알 주 30mg을 7일마다 1회 투여받은 환자는 초기용량으로 소마툴린 오토젤을 28일마다 1회 120mg을 투여한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에 있어서 용량은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의 수준이 감소하거나 또는 관련 증상이 호전된 환자)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 경우,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성장호르몬(GH)농도가 1ng/mL미만이고, IGF-1수준이 정상화 및/또는 관련 증상이 소실되는 등 완전한 조절이 이루어질 경우,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소마토스타틴 유도제로 잘 조절되는 환자는 소마툴린 오토젤 120mg을 매 42일 ~ 56일 마다 투여할 수 있다. 장기간 증상을 모니터링 할 경우, 성장 호르몬과 IGF-1의 수준을 체크 해야 한다. 2. 카르시노이드 종양 - 초기 추천용량은 28일 마다 60mg에서 120mg까지 투여한다. 이 용량은 증상의 소실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투여방법】 본 제제는 둔부에 피하 갑숙이 주사하고, 이 때 피부가 접히지 않아야 한다. 주사바늘은 피부에 수직으로 바늘전체가 신속하게 삽입되도록 한다. 희귀의약품 / 전문의약품 분류번호 : 249

Contents 2008 Vol.2



GREETINGS

02 2호를 발간하며 _ 김성연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EDUCATION

- 04 대한내분비학회지 통권 Vol.23 논문안내
- 06 EASD를 다녀와서 _ 김홍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 08 ICE 2008을 다녀와서... _ 박이병 가천의대 길병원
- 10 ETA(유럽갑상선학회)2008 _ 김경원 서울의대 강남센터

CULTURE

- 14 수필 - 의사(醫師) 하나 _ 유형준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 17 학회영어 _ 신찬수 서울의대

INTERVIEW

- 18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위원회 소식

INFORMATON

- 20 대한내분비학회 지회 소식
- 23 2008 학회 행사 및 업무결산 - 주요행사 / 기타 행사 / 2008년도 수상자 명단 / 회의 및 모임
- 35 회원 동정
- 36 인사말 _ 손호영(가톨릭의대) 신임 회장
임승길(연세의대) 신임 이사장

2호를 발간하며...

KOREAN ENDOCRINE SOCIETY

KOREAN ENDOCRINE SOCIETY

내분비학회 회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저물어 갑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학회 이사진은 이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09년부터는 새로운 집행진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임원진은 그동안 선배 교수님들이 쌓아놓으신 훌륭한 우리학회의 유산을 지키고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좀 더 도약해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학회의 고유 기능인 학문적인 교류의 활성화와 전문 지식의 전달을 위해 춘/추계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에서 증례토의, technical session, meet the professor 등의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춘계학술대회에 international session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리학회 젊은 회원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역시 같은 목적으로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위한 travel grant를 제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주요 내분비질환의 국내 발생률 산출을 위한 조사 작업을 시작하여 이제 결과를 일부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행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대한내분비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이루었으며 매호 정시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보험에서는 지난 2년간 수많은 건강보험 관련 자문을 하여 근거 중심의 진료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면에서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정보제공 및 외국 내분비학회와의 교류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홍보에서 학회소식지를 창간하여 학회지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식 및 회원 동정을 전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회원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회원 명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저희 이사진들이 소신껏 일 할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전 회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선배, 원로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업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분비학 분야는 어느 학문분야 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학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회원 수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내분비학 내에서 세부 분과화의 가속과 분과학회의 창립, 내분비학회지 수록 논문의 감소,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 앞으로 우리학회가 넘어야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09년부터 학회를 이끌게 될 손호영 회장님과 임승길 이사장님께서 학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회 회장으로서 이사진을 잘 이끌어 주신 김광원, 김기수 교수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 12.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김성연

2008년 대한내분비학회지 통권 volume 23 논문 안내



사춘기 유발에 키스펩틴(kisspeptin)이 관여한다.

Metastin으로도 알려진 키스펩틴은 번식기능의 발육 및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로는 ① 키스펩틴 신경섬유가 성선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GnRH) 신경세포에 축삭을 뻗어 시냅스를 형성, ② GnRH 신경세포에 G-단백연계수용체 54 (GPR54) mRNA가 발현, ③ 키스펩틴이 GPR54를 매개로 GnRH 및 성선자극호르몬(gonadotropin) 분비를 촉진, ④ 키스펩틴이 대부분의 GnRH 신경세포의 활성을 강력하게 증가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을 배경으로 키스펩틴이 유력한 사춘기 유발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시사되었다.

실험동물로 GnRH 신경세포만 녹색의 형광을 발하도록 형질을 개량한 형질전환 마우스(GnRH-EGFP-Mut5)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사춘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질전환마우스로부터 뇌절편을 얻어 GnRH 신경세포를 확인하고 gramicidin perforated-patch clamp 방법을 이용하여 키스펩틴에 대한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GnRH 신경세포에서 키스펩틴 반응양상이 성별, 암컷의 경우 생리주기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키스펩틴이 세포 내 PLC를 경유로 반응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사춘기 유발에 정상적인 G-단백 연계 신호기전이 관여하고 사춘기유발의 신경조절에 있어서 키스펩틴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저자들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타라이저나던, 박선아, 윤화, 박수정, 전재규, 장기완, 이소영, 류판동, 한성규

성선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 신경세포에서 성장에 따른 키스펩틴의 효과
(대한내분비학회지 23권 5호:302-309, 2008)



반복적인 금식과 재식을 통해 렙틴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혈관·뇌장벽을 통과한 후 시상하부의 궁상핵에서 B형 렙틴 수용체와 결합하여 POMC (proopiomelanocortin) 유전자 발현을 자극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α -MSH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가 뇌실주위핵(paraventricular nucleus)에서 melanocortin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렙틴은 정상인에게는 현저한 항비만효과를 나타내지만 비만한 경우에는 렙틴 농도가 이미 높아져 있고 렙틴의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한다. 이런 렙틴 저항성 개선은 이미 증가한 렙틴에 의한 항비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저한 복강 내 지방축적은 나타내지만 당뇨병은 발생하지 않은 7개월령의 OLETF쥐를 비만쥐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대조쥐로는 동일 연령의 LETO쥐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식이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은 대조군, 24시간의 금식과 24시간의 재식을 반복한 실험군(RFR군), RFR군이 재식이 시에 섭취한 식이량의 절반을 매일 섭취하게 한 대조식이군(PF, pair-fed)으로 나누었다. 위의 3가지 실험군은 다시 뇌실로 인공뇌척수액을 주입한 군과 렙틴 주입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에서 주어진 방식으로 식이가 이루어진 다음 렙틴(15 μ g/rat/day) 또는 인공뇌척수액을 좌측 뇌실로 주입하였다. OLETF쥐는 심한 복강 내 지방축적과 고렙틴증 및 렙틴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OLETF-RFR군에서는 OLETF-대조군에 비하여 뇌실로 주입한 렙틴의 식이섭취 억제효과가 증가되었으며 복강 내 지방량이 감소하고 혈청 adiponectin 농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LETO-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던 OLETF-Control군의 시상하부 렙틴수용체 단백질량도 OLETF-RFR군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OLETF 쥐에서 반복적인 금식과 재식을 통한 혈액 내 렙틴 농도 변화는 렙틴 감수성 회복, 복강 내 지방량 감소, 및 혈청 adiponectin 농도 증가의 효과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시상하부 렙틴 수용체 단백질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자들은 결론내렸다.

박성철, 박용훈, 박소영, 김종연, 박윤기, 이태형, 원규장, 김용운

반복적인 금식으로 인한 렙틴 농도 변동이 렙틴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내분비학회지 23권 5호:310-318, 2008)

EASD를 다녀와서...

김 홍 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제 44차 유럽당뇨병 학회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열렸다. 나는 3번째로 유럽 당뇨병학회에 참석하는 셈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로마’라는 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국적기보다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서 독일 항공을 이용하여 로마에 도착한 것이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입국수속은 이미 비행기를 갈아탔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쳤기에 비교적 빨리 짐 찾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공항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했던가! 그리 깨끗하진 않은 인상에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니.....”라고 생각하며 짐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빙글 돌아 나오는 짐들을 볼 수 없었다. 우리 비행기에서 내린 대부분의 유럽계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것은 역시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뿐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공공기관 및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많았다. 이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아무 말이 없이, 또는 옆의 아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수다정도를 떨면서 웃으며 기다린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화난 한국 사람들의 익숙한 한국말-“아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만 빼면 말이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2시간이 지나서야 짐이 벨트에 보이기 시작했고, 늦어지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설명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난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심사를 하고 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 어김 없이 최소한 10여분 내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짐들을 볼 수 있는 ‘빨리 빨리’의 우리 나라에 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호텔로 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하였다.

야경으로 흘깃 본 로마의 거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수 많은 조각상들이 보이는 유적의 도시였고, 내가 그리도 와 보고 싶었던 ‘로마’라는 도시에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학회장에 가면서, ‘참 친절하지 않은 도시’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장은 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새로 생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전철 타고 노선의 종점에 가서 서틀 타고 들어가는데 약 1시간 반이나 걸렸다. 그럼, “왜 학회장 가까운 호텔을 잡지.....”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학회장 가까이에는 아무런 호텔이 들어서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텔이 지어지기 전의 ‘영종도’ 같은 곳에서 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주보다 더 땅만 파면 나오는 유물들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고도 제한으로 시내 아주 외곽에도 고층 호텔을 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해는 하였지만, 정말로 많이 불편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장은 냉방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매우 더웠고, 음향 및 방음 시설도 많이 미비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프라다’ 같은 명품을 국산으로 즐길 수 있고, 쾌적한 날씨의 혜택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박물관 같은 로마라는 도시와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역시 불편한 나라인 것 같았다. 학회에서는 무사히 포스터발표도 마쳤고, 미국에서 모셨던 나의 보스로부터 내 포스터를 잘 보았다는 인사도 받았고,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었다. UKPDS이후 10년 추적 결과 (지금은 이미 NEJM논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를 발표하여, ACCORD 및 ADVANCE 연구 발표로 철저한 혈당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지를 염려하고 있던 당뇨병 전문의들을 안심시켜주었는데, 이런 긴 기간의 연구가 가능한 것이 유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함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도착한 다음날과 마지막 날에는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묵었던 호텔은 Barberini광장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별의 분수’, ‘트리톤의 분수’, ‘트레비 분수’ 등 유명한 분수들과 ‘스페인 광장’, ‘판테온’ 등 정말로 유명 관광지를 걸어

서 천천히 돌아보았다. 오기 전에 나름대로 로마의 역사 및 볼 만한 유적지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왔고, 영화 ‘로마의 휴일’을 DVD로 다시 보고 온 터라 역사 속, 영화 속의 장소에 와 본다는 감동이 컸다. 박물관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지금의 미적 감각에 버금가는 작품들을 남긴 로마인들의 우수한 문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녁으로 스파게티, 해물 리조토, 그리고 피자를 싹껏 먹어본 것은 얼마의 팁을 주나 하고 고민한 것만 제외하면 즐거운 경험이었다. 또한, 100여년 전부터 대를 이어서 하는 유명한 가게에서 ‘젤라토 (아이스크림의 이탈리아어)’를 사 먹으면서, 내가 10년 뒤에 다시 로마에 왔을 때에도 그 젤라토 가게는 틀림없이 그 위치에서 똑 같은 맛의 젤라토를 팔고 있을 것이라는 ‘천천히 가는 로마’의 장점을 어느 새 존중하게 되었다. 너무 쉽게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정책들을 바꾸어버리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빠른 것에만 가치를

두는 우리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면서 살아가고, 길게 보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여 다시는 오기 싫은 도시라고 생각했었지만, 떠나기 전날에는 일부러 트레비 분수에 찾아가 ‘언젠가 다시 로마에 와보기’를 바라며, 뒤돌아서서 동전을 던지는 나를 발견하곤 미소지었다.



김 홍 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ICE 2008

세계내분비학회 2008 (ICE 2008)을 다녀와서...

박 이 병 가천의대 길병원

지구 반대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발음은 히우데자네이루)에서 학회가 개최된다는 것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더군다나 4년마다 개최하는 학회라 흔치 않는 기회로 생각되어 초록을 준비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transit 시간을 포함하여 30여 시간 여행 후 도착한 브라질은 우리의 반대쪽이라 초여름 날씨였으며 아마존강과 이과수 폭포가 있고 리오축제가

개최되는 축구 강국이다.

세계내분비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ICE)는 4년마다 7개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학회이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지역에서 개최되는 13차 학술대회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유명 석학들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기대를 하기에 충분

했다. 그러나 막상 학회장에 도착해서 여러 강의를 듣다 보니 브라질 지역학회에 몇 명의 외국인을 초대하는 정도의 다소 낮은 소규모 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규모나 의미에서 다소 처지는 감이 있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흥미로운 연구 업적의 발표 없이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학회기간에 내내 진행되었는데 "Meet the Professor"와 "Debate" 코너가 바로 그것이었다.

Meet the Professor 세션은 매일 7-8개의 증례를 중심으로 청중과 토의하며 애매한 경우를 명쾌하게 풀어가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Debate 코너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거나 핫이슈가 되고 임상적 문제를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재미있는 코너라고 생각되었다. 즉석에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주고 받는 모습은 다른 학회와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평소 당뇨병이라는 질병을 주로 고민해오던 터라 깊은 지식이 별로 없었던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등에 대한 증례 토의는 나의 미천한 의학 지식을 풍족하게 해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나라 실정을 돌아해보면 내분비 관련학회가 분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모(母)학회인 대한내분비학회가 축소되는 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례

토의를 활성화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면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회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쏟아지는 의학지식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얻어갈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분비학이 앞으로 연구해야 주제에 대해 소개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diabetes and obesity, aging, life style disease, HRT 등이었다.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이 21세기의 화두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며 노인연령이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논평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우리나라는 심포지엄 연제 발표 2개를 포함하여 10여 개의 연구과제 발표되었으며 20여분이 참석을 하였는데 아마도 국내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과 겹쳐서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한 것 같았다. 학회장에서는 2%의 부족함이 있어 아쉬

웠지만 학회장을 나와 주변을 돌아보면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었다. 세계 3대 미항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을 걸어보고 이빠네마 해변에서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외국인의 늘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같이 갔었던 선후배 의사와 브라질 전통음식인 슈라스코 (Churasco), 페이조아다 (feijoada)를 먹어보고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슈가르프산을 올랐던 추억도 잊을 수 없다. 4년 뒤 다음 학회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이 참석하여 좋은 업적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 이 병
가천의대 길병원



작년에 유럽갑상선학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말씀이 미국 갑상선학회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라고 해서, 올해는 미국 대신 유럽을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유럽으로 여행가는 것은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유럽 학회 역시 처음이라 웬지 모르게 꼭 가고 싶었다. 하지만 신화로 잘 알려진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은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부터 알게 되었다. 일단 직항편이 없었다. 바로 옆의 터키도 직항편이 있는데, 그리스는 없다니 좀 의아했다. 둘째, 학회 공식 장소가 '그리스, 데살로니키'여서 나는 철석같이 데살로니키에서 학회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비행기 스케줄을 최종 결정하려고 할 때 알게 된

사실은 학회가 데살로니키 근교의 휴양지(Porto Carras)라는 것이었다. 즉 데살로니키 공항에서 차로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휴양지에서 열린다는 것을 학회 공식 홈페이지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한 것이다. 한국도 아닌 유럽에 웬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장소 (별로 크지 않은 공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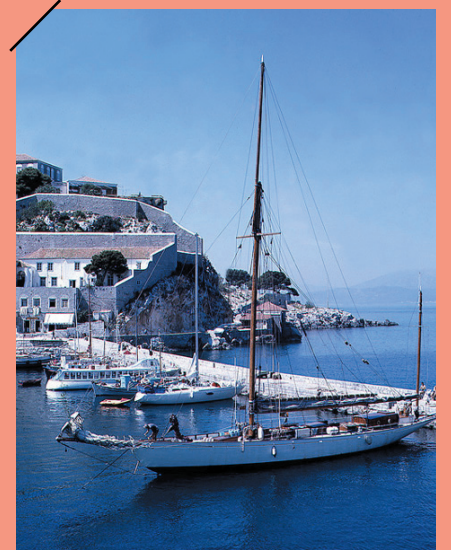
이상한 시간(차도 안다니고 택시도 없는)에 내리면 그 난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학회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셔틀을 타기 위해서는 일단 데살로니키에 낮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따라서 로마에서 1박을 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먹고 그리스로 출발하여 1시간 30분 정도 만에 도착하였다. 그리스와 로마는 정말 가까운 나라구나 싶었다. 데살로니키 국제공항은 김포공항보다 크지는 않았고, 공항에 도착하니 학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별 문제 없이 셔틀을 타고 학회 공식 호텔인 Meliton Hotel에 도착하였다. 본인은 숙박비를 다소 아끼기 위해 Meliton Hotel이 아닌 Meliton Inn (개인이 운영하는 여관집이라고 보면 됨)에 묵었는데, 추운 것과 학회장과의

거리가 먼 것 빼고는 가격대비 매우 만족하였다. 전반적으로 작은 도시여서 택시가 몇 대 없어 택시를 호출해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동시에 2대를 부르지 못한다고 하여, 아침에 학회장에 가면 감히 학회장 밖으로 나올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학회는 약간은 한적한 분위기였으며, 전반적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발표를 많이 하셨다. 실제로 유럽의 내과 교수님들이 직접 구연 발표를 하였고, 일부에서는 구연발표도 결시자가 있기도 하여, 아마도 비싼 등록비와 숙박비 때문에 많이 못 온 것 아닐까 싶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최종 등록인원은 711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에서 30명 가까이 참가하였으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지 않았을 까 싶었다. 내과 외에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갑상선결절 쪽으로 초록을 많이 내어 참가하였다.

9/20 토요일에는 강의를 듣지 못하고 9/21 아침부터 학회에 참여하였다. 학회장은 호텔 부지 내에 있었으나 호텔과는 약 10분 거리에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심포지움이 열려, 다른 곳에서 숙박하는 사람에게도 호텔 부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학회는 토요일부터 수요일 점심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연은 총 66개였으며, 포스터는 191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0개의 포스터 초록을 발표하였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은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암관련 내용이었다.



ETA(유럽갑상선학회)2008

김 경 원 서울의대 강남센터



모든 포스터는 주제별로 나뉘어서 점심 시간에 포스터 앞에서 서서 좌장과 디스커션을 하였다. 한 연제당 약 3분 정도씩 발표를 하도록 하였고, 내 예상과는 달리 참석율이 높아 상당히 흥미진진하였다. 게다가 논문에서 교신저자로만 알려졌던 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것을 들으니 그것 또한 감회가 남달랐다. 포스터 디스커션은 매일 5개 정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은 산화스트레스, 갑상선초음파, 갑상선호르몬과 대사, 갑상선암의 진단 및 분류, congenital dysmorphogenesis, 하시모토갑상선염, 갑상선안구병증, 갑상선질환과 임신 등 8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구연은 갑상선암 1/2, 갑상선안구병증 및 자가면역, 갑상선의 발달 및 기능, 요오드와 갑상선호르몬, 임상 갑상선학,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구연 중에서 Topic Highlight I/II 를 따로 모아 발표하였다. 단순히 나의 느낌이지만 유럽 갑상선학회는 미국학회보다 임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외에 Meet the Experts, Harington-De Visscher Prize Lecture, Merck KGaA prize lecture등이 있었고 심포지움이나 meet the expert는 다른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전부 들어가 보진 못하였다.

Topic Highlight에 발표되었던 연제는 다음과 같았다.

- 1) 갑상선의 발달과 분화에 관련된 새로운 유전자의 발견
- 2) TSH 베타 유전자의 TRH유도 transactivation 기전
- 3) 분자량이 낮은 길항제가 사람의 TSH 수용체의 TSH/TSH항체유도 활성화를 억제함
- 4) 유전성 수질암의 전이에 있어서 VANDETANIB (300 MG) 임상 phase 2 : partial response가 17%, stable disease가 73% 정도로 결과를 보였다.
- 5) 폐경후 여성에서 갑상선호르몬이 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OPUS study) : TSH보다는 free T4가 BMD와 연관이 있고, free T4가 높으면 BMD가 낮다는 내용
- 6) 불현성 갑상선기능질환과 X chromosome 불활성화의 관계 (쌍둥이연구를 중심으로)
- 7) 갑상선자극항체와 TSH 결합항체간의 분자적 유사성
- 8) 산모의 TSH수치가 높을수록 임신초기에 유산, 태아사망 및 신생아 사망률의 위험 증가
- 9) P46, prima-1, nutlin-3 (hdm2 inhibitor)의 갑상선암세포주에서 세포자멸사의 유도 및 p53 활성화
- 10) 갑상선전이암에서 sorafenib phase 2 연구
- 11) 갑상선안구병증에서 눈물의 proteome patterns
- 12) 제 2형 iodothyronine deiodinase 결핍쥐에서 골격내 무기질침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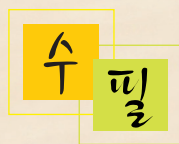
ETA는 미국 갑상선학회나 내분비학회와는 달리 social program을 다양하게 준비한 것이 특이하였다. 이번 학회는 주최 측에서 아토스성산(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있는 곳으로 여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주변 크루즈를 계획하였는데, 본인은 포스터 디스커션과 겹쳐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다녀오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성스러운 산같이 보였다고 한다.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학회가 유럽 학회의 특징으로 들었다. 원래 학회는 수요일 점심까지였으나, 비행기 시간관계로 화요일까지만 참

석하였다. 학회휴가는 1주일이었는데, 막상 학회 참석시간은 3일이어서 참관기를 쓰려고 하니 웬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혼자였으면 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가주셔서 참석할 수 있던 학회였다. 학회 참석을 하고 난 느낌은 정말 여러 나라 사람이 오는 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토도 좀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내과의사만이 아닌 다른과의 발표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었던 것, 생각보다 그리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다는 것, 그리고, 유

럽은 한 사회라는 듯한 느낌 등이 이번 학회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향후에 다시 한번 유럽학회에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앓고 돌아왔다.



김 경 원
서울의대 강남센터



의사(醫師) 하나

유형준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詩人 필명 柳潭

자기 자신의 안팎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두터운 자서전을 쓰더라도 아무리 상세한 이력서를 적더라도 가능치 못한 일이다. 다만 필자 자신의 독필(禿筆)* 소품(小品)으로 에둘러 표현하고자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2편의 짝막한 글을 그저 읽어주시기 바란다.

의사 1: 재상(宰相) 환자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앓아 누운 채 의사를 불렀다.
한 젊은 의사가 호기롭게 와서는 병의 용태와 과거력, 그리고 가족의 병력들을 소상하게 물었다. 응답하기에 골이 난 비스마르크는 「병을 고쳐달라고 당신을 불렀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요」라고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젊은 의사는 눈썹하나 까닥 않고 대꾸하기를 「질문을 받지 않고 치료만 받겠으면 수의사를 불려도 됩니다.」

「짐승 같은 재상이여.」를 「수의사를 부르시지요.」라고 한 젊은 의사의 자존심이 매우 당당하다. 분량 많은 의학공부를 바로 마친 젊은 의사에게야 어디 철혈재상이 대수이라. 아마도 병을 잘 잡아내어 다듬으면 목표달성이라 생각하였을 게다.

문득 옛날 인도의 부자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려했다. 그의 머릿속엔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짝 차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품목별 결정을 못 내렸다. 며칠 밤·낮을 나머지 심신을 쏟은 후에 드디어 흐뭇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건 두 개로 쪼개라. 옷도, 집도, 그리고 돈도.」두 형제가 따져 보아도 그럴듯했다. 그러나 두 아들에게 나눠진 그것들은 모두 반으로 쪼개진 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되었음이야 말할 나위가 있으랴.

젊은 의사와 부자를 비교함은 어색하기는 하나,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아들의 마음을 공평하게 다졌다면, 또한 짐승이라고 면박하기에 앞서 질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두 사람 다 한 골로만 뻗어 가는 몰살이란 점에선 어느 하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특히 요사이처럼 일반, 보험, 특진, 그리고 비특진 등의 구별표시가 정해진 자리 없이 찍혀있는 마당에 차트 표지는 눈감고 넘긴 후에 병에 관한 조목만 뽑아 들추어 볼 수 있는 재주꾼이 어디 있으랴. 오히려 차트표지에 환자의 직업, 성격 등등을 적어 놓고 가능한 한 요모조모로 챙겨줌이 조금 더 넓은 의원(醫員)의 심사(心思)라 믿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번은 경험했을 젊은 의사의 당당함을 더러 그리워하면서도 아무러니 동전을 반으로 쪼개는 허망을 저지름까. 당장의 진료실을 둘러본다.

의사 2: 약 반환하기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동들 중에 하나를 들라면 약을 물리고 돈으로 반환 받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진료 현실의 답답한 태생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진료 시간의 길고 짧음, 진료 중에 묻고 답하는 문진의 질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이 전연 고려되기 어려운 현재의 형편에선 결국 어떤 약을 처방하고, 처방한 그 약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진료의 모든 평가가 달경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선생 약 좋더군.”

한 환자 한 환자를 대할 때마다 머릿속 초고성능 컴퓨터가 작동하는 듯한 의학 지식과 경험의 간단없는 가닥 잡기,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전진과 후퇴의 감정적 균형 잡기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거의 따져 볼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약이 좋아’ 찾아온다는 말이 대단한 찬사로 득세하여 의사든 의사를 흉내 내는 사람이든 약을 만지는 사람들을 모두 같은 수준에서 보는 분위기를 안쓰러워할 뿐이다.

여하튼 기다림 끝에 진료실에 들어서고, 고심 끝에 처방을 내고, 또 고생고생 끝에 약을 타 가지고 가서 정성스레 복용을 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몸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면 꽤 난감하다. 환자 본인도 의사도, 그것도 한두 달치를, 그것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더구나 어찌 고생해서 구한 약인데, 이리 저리 궁리 끝에 큰 용기를 내어 병원을 다시 찾아 물리거나 바꾸게 된다. 물론 약값 영수증과 취소 처방과 변경 처방과 이곳저곳에서 창구 문의를 되풀이해가며 처음에 약타던 일보다 분명 만만치 않은 노력으로 병원과 약국 순례를 한다. 불편하다. 짜증이 날만큼 불편하다. 그냥 바꿔주든지 환불해주면 될 것을.

여기서 잠깐 생각해본다. 약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나날이 새롭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은근한 것에서 순식간에 병세를 바꾸는 것까지 천차만별인 채로 각각의 환자에게서 신통한 효험을 낼 수 있기를 고대하며 개발되고 처방되어진다. 따라서 약물의 교환은 전자기기 바꾸듯이 한두 가지 기능 검사로 쉽게 이루어 질 수가 없다. 따라서 번거로울 정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어떤 약이 원인인지, 혹시 약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은 아닌지, 특히 복용한 환자의 의학적 특이성의 문제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당장뿐만 아니라 다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업무는 기능적 분리가 아닌 공간적 분리로만 가능하다고 우기며 약국을 덜렁 한데로 내어 놓은 이들이 적지 않은 형편에서 이런 이야기는 사치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환자였던 적이 있고, 언제고 환자가 될 수 있고, 진료실 앞에서 지루하게 대기해 본적도 있고, 대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 새 없이 묻고, 진찰하고, 공감하며 지내는 여러 의사들 중의 하나임을 곱씹으며 이제는 더 이상 사치여서는 안 된다는 집착을 끊어낼 수가 없다. 어느새 겨울. 올겨울 진료실은 파스했으면 좋겠다. E

*독필: 몽당뽕



신 찬 수 서울의대

◎ 좌장의 세션 시작 인사

1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welcome you all to the Plenary Session. My name is ○○○, professor of endocrinology, ○○○ University, Seoul, Korea.

2 Good afternoon. Welcome to the Session 1 of the Symposium. I'm Dr. ○○○ from ○○○ University, Seoul, Korea.

3 Good afternoon, and welcome. I'm deligh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moderate this afternoon's session regarding the ○○○○

◎ 좌장의 세션 규칙 설명

1 I'm going to make some opening remarks at this point in time. And then we will hear from the speaker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introduced. The speakers are going to speak for 25 minutes. And we hope if we have enough time at the end, we will be able to have questions, written questions brought up from the audience, and we'll have the speakers answer them.

2 The speakers will each speak for approximately 18 to 20 minutes. I am going to ask each of the members of the panel to please strictly adhere to the time limits. At the end of the last speaker for each panel,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for questions and answers.

대 / 한 / 내 / 분 / 비 / 학 / 회 학 / 술 / 위 / 원 / 회 소 / 식

1.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위원회 명단(2007~2008)

직 위	이 름	소 속
위원장	이문규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간 사	김원배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위원	고정민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동선	한양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김두만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박영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송민호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유순집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내분비내과
	이인규	경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정호연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내분비내과
	차봉수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최흥식	전남대 호르몬연구센터

2.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

학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1년에 2회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다.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는 2008년 5월 16~17일에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의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내분비학 관련 연구자들 뿐 아니라 해외 학자들의 미발표 연구 결과를 토의할 수 있는 International Session을 신설하였고, 이들 세션에서는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총 12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Plenary lecture 및 심포지움 세션에는 대사증후군, 신경-내분비, 지질 대사, 갑상선 암 및 골대사 분야에서 해외 연자 9명을 포함한 국내외 최고의 권위자들을 연자로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증례를 토의할 수 있는 증례토의 시간 신설과 영상 진단 기법을 위주로 한 "Practice in Endocrinology" 강의를 통하여 회원들의 진료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추계 학술대회(심포지움)는 11월 8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Hot topic은 "Immune system and Endocrine system"으로 정하여 진행되었다. Plenary lecture는 일본 Hiroshi Takayanagi 교수의 "Bone and Immune system"이라는 주제로, 갑상선 분야에서는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3. 남곡 학술상 심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SCI 등재 학술지에 책임저자 (제1저자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발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남곡 학술상 대상 후보자의 응모를 2008년 9월~10월 초에 받아 심사하였다. 발표된 연구 실적의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의 강은석 교수가 선정되었고 대표 논문은 "A Polymorphism in the Zinc Transporter Gene, SLC30A8, Confers Resistance against Post-transplantation Diabetes Mellitus in Renal Allograft Recipients (Diabetes 57:1043, 2008)"으로 추계 심포지움 석상에서 시상 및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춘계 학술대회 - 2008. 5. 16~17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추계 학술대회(심포지움) - 2008. 11. 7~8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대 / 한 / 내 / 분 / 비 / 학 / 회 / 지 / 회 / 소 / 식

대한내분비학회 영남지회

하반기 집담회

- 일시 : 2008년 9월 30일(화)
- 장소 : 부산롯데호텔 42층
-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 장소 : 부산롯데호텔 에메랄드룸

SDM

- 일시 : 2008년 10월 11일(화)
- 장소 : 울산대학교 강당

당뇨주간 행사 - 푸른빛 점등식

-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2008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주간 행사

- 일시 : 2008년 11월 15일(토) 오전 8시-11시
- 장소 : 해운대구 장산 대천공원



하반기 집담회



당뇨주간 행사 - 푸른빛 점등식



2008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주간 행사

대한내분비학회 대구·경북지회

제 17 회 대구·경북 소아 건강캠프

- 일시 : 2008년 8월 4일(월) ~ 8일(금)
- 장소 :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부설 학생수련관
- 참가자수 : 캠프대원 40명, 캠프 진행 인원 50명

9월 모임

-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6시
- 장소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강의동 2층 세미나실



제 17 회 대구·경북 소아 건강캠프



2008 세계 당뇨병 주간 기념 시민공개강좌

2008 세계 당뇨병 주간 기념 시민공개강좌

-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영남대학교병원 대강당

11월 모임

-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후 6시
- 장소 : 대구파티마병원 3층 제1강의실 (대강당 앞)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정기모임 및 당뇨병 캠프지원

- 일시 : 2008년 9월 19일(금) ~ 21일(일)
- 장소 : 도고파라다이스호텔

송년회 및 각 병원 증례 토의

- 일시 : 2008년 11월 28일(금)
- 장소 : 충남대병원

정기 모임 및 당뇨병 걷기

- 일시 : 2008년 10월 18일(토)
- 장소 : 대전 갑천고수부지



정기모임 및 당뇨병 캠프지원

2008 학회 행사 및 업무결산



제25회 연수강좌

- 일정 및 장소 : 2008년 4월 6일(일),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
- 등록인원 : 384명

오전	Comprehensive Endocrinology	
09:30 - 10:00	GLP-1의 이해	경희의대 오승준
10:00 - 10:30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울지의대 김현진
11:00 - 11:30	부신피질호르몬의 이해와 평가	건국의대 송기호
11:30 - 12:00	골다공증의 검사와 치료	성균관의대 오기원
12:00 - 12:30	Pituitary, Adrenal Incidentaloma 의 접근 방법	연세의대 이은직
오후	Practical Endocrinology (증례 토의)	
13:30 - 14:00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울산의대 김기수
14:00 - 14:30	중환자실에서의 혈당 조절	인제의대 박정현
15:00 - 15:30	쿠싱증후군	인하의대 남문석
15:30 - 16:00	갑상선 기능항진증	울산의대 김태용

춘계학술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6일 ~ 17일(금,토)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 등록인원 : 553명

- 5월 16일(금) -

10:40-12:20	Symposium(I) [A Room] - Cell Signal and Metabolic Homeostasis	좌장 : 채치범/최광식
1)	TRPV2: a New Target Molecule of the Insulin Action in Pancreatic Beta Cells Itaru Kojima (Gunma Univ., Japan)	
2)	Nuclear Receptor ROR α and Its Metabolic Functions	서울대 약대 이미옥
3)	Advances in PKB/Akt Signaling	충남의대 박종선
내분비 증례토의 [B Room]		좌장 : 최영길
1)	PRKARIA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계없는 한국인 Carney Complex한 가족	경희의대 이상열
2)	양성 결절성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Heterophilic Antibodies에 의한 Calcitonin 증가를 보인 1예	성균관의대 이지인

13:40-14:30	Plenary Lecture	좌장 : 임승길
Contributions to Osteoclast Biology from Japan and Korea Tatsuo Suda (Saitama Medical Univ., Japan)		
14:30-16:00	Symposium(II) [A Room] - Circadian Clock in Neuroendocrine System	좌장 : 김성연/이은직
1) Re-starting the Clock: Recent Developments in Circadian Biology and How They Impact Reproductive Science Patrick Chappell (Oregon Sate Univ., USA)		
2) Interactions between Circadian Clocks and E2 in Generating Negative and Positive Feedback Regulation of GnRH Neurons Suzanne M. Moenter (Univ. of Virginia, USA)		
3) Photic Signaling Pathways in the Vertebrate Circadian Clock 경희대 조세형		
Symposium(III) [B Room] - Research Targeting Abnormal Lipid Metabolism Related with Metabolic Ds.		좌장 : 김영건/이현철
1) PCSK9, a New Therapeutic Target of Hypercholesterolemia 연세의대 박상욱		
2) Dermcidin and SIRT1 as Molecular Targets for Metabolic Diseases 전북의대 박병현		
3)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Atherosclerosis 서울의대 김상현		
- 5월 17일(토) -		
08:40-10:00	Practice in Endocrinology [3층 Diamond Hall]	좌장 : 김광원
1) 내분비 질환에서 핵의학 영상의 이용 및 해석 성균관의대 최준영		
2) 뇌하수체 질환의 영상학과적 진단 가톨릭의대 안국진		
10:20-11:10	Plenary Lecture	좌장 : 조보연
PI3 Kinase Signaling and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 in Thyroid Cancer Invasion Matthew D. Ringel (Ohio State Univ., USA)		
11:10-12:20	Symposium(IV) [A Room] - Thyroid Cancer - Recent Progress in Understanding Pathophysiology	좌장 : 김경래/송영기
1) BRAF Mutation in Papillary Thyroid Cancer: Pathogenic Role, Molecular Bases, and Clinical Implications Mingzhao Xing (Johns Hopkins Univ., USA)		
2) Signal Crosstalks between MST (Hippo) Kinase and BRAF ^{V600E} Oncogene 을지의대 조영석		
10:20-12:20	International Session(I) [B Room] - Bone / Osteoporosis	좌장: 손호영/강무일
1) Enhanced Mitochondrial Biogenesis Contributes to Wnt Induce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C3H10T1/2 Cells 서울의대 안지현		
2) Bone Mass Regulation by Osteocyte Network Toshihisa Komori (Nagasaki Univ., Japan)		
3) Neuromedin U Controls Bone Remodeling Centrally in Collaboration with Leptin-Sympathetic Nervous System Pathway Shu Takeda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 Japan)		
4) Multiple Roles of a Parathyroid Calcium-Sensing Receptor in Bone Cells Naibedya Chattopadhyay (Central Drug Research Institute, India)		
5) Connecting Bone Formation and Tumorigenesis by the BMP-Smad Pathway Baojie Li (The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Singapore)		
6) Comprehensive and Functional Analyses of Glucocorticoid Responsive Genes in Osteoblastic Cells Kotaro Azuma (Univ. of Tokyo, Japan)		
13:30-13:50	2007년도 내분비 연구본상 발표	좌장 : 김성연
PPAR, Adipokines and Metabolic Syndrome 고려의대 최경목		

13:50-14:40	Special Lecture	좌장 : 이흥규
	Endocrinology: A New Look Through Epigenetics Shuk-Mei Ho (Univ. of Cincinnati, USA)	
14:40-16:10	Symposium(V) [A Room] - Vascular Calcification and Osteoporosis	좌장 : 손호영/민용기
	1) Osteoporosis and Vascular Calcification-Clinical Observation 성균관의대 이은정	
	2) Osteoporosis and Vascular Calcification-Common Mechanisms Lorenz C. Hofbauer (Technical Univ. of Dresden, Germany)	
	3) The Activin A-Follistatin System: Potent Regulator of Human Extracellular Matrix Mineralization Johannes P. van Leeuwen (Erasmus Medical Center, Netherland)	
14:40-16:05	International Session(II) [B Room] - Diabetes & Metabolism	좌장 : 이문규/이인규
	1) The Effect of Combined Treatment of α -Lipoic Acid and Insulin on Skeletal Muscle in OLEFT Rats 가톨릭의대 김지희	
	2) Lipocalin-2, a Small Lipid Binding Protein as an Important Mediator at the Crossroad of Obesity, Inflammation and Metabolic Syndrome Yu Wang (Univ. of Hong Kong)	
	3) SMRT Knockdown Inhibits Insulin-Stimulated Glucose Transport in 3T3-L1 Adipocytes Juu-Chin Lu (Institute of Molecular Biology, Taiwan)	
	4) Conophylline and Betacellulin δ 4: Two Promising Differentiation Factors for Pancreatic β Cells Tsutomu Kodera (Gunma Univ., Japan)	
	5) Continuous Delivery of Betacellulin Accelerates β Cell Regeneration Yoritsuna Yamamoto (Gunma Univ., Japan)	
	6) Esculeogenin A, a New Tomato Sapogenol, Ameliorates Hyperlipidemia and Atherosclerosis in ApoE -Deficient Mice by Inhibiting ACAT Yukio Fujiwara (Kumamoto Univ., Japan)	

제6회 전임의 연수강좌

- 일정 및 장소 : 2008년 7월 4일~ 5일(금,토), 인천하얏트 리젠시호텔
- 등록인원 : 105명

- 7월 4일(금) -

오전	뇌하수체 / 갑상선	
09:00-09:40	뇌하수체 후엽 질환	성균관의대 박철영
09:40-10:20	뇌하수체 종양의 TSA 수술 전후 호르몬 관리	아주의대 정윤석
10:30-11:10	갑상선암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및 평생 관리	한림의대 이성진
11:10-11:50	갑상선 수질암	성균관의대 김선욱
11:50-12:30	임신중 갑상선기능 이상	연세의대 김경래
오후	부신 / 당뇨병	
13:20-14:00	부신피질기능의 평가	부산의대 손석만
14:00-14:40	스테로이드 치료의 원칙	충북의대 오태근
14:40-15:20	지질대사의 이해	동아대의 김덕규
15:30-16:10	LADA(latent autoimmune diabetes in adults)의 병태 생리	한양대의 박용수
16:10-16:50	인슐린 분비능과 저항성의 측정	가톨릭의대 차봉연
16:50-17:30	당뇨병 관리의 최신지견	성균관의대 이문규
17:30-18:00	Meet the Professor (김광원,김성연,김영설,이광우)	

- 7월 5일(토) -

오전	여성호르몬 / 골대사	
09:00-09:40	다낭성난소증후군	이화여대 성연아
09:40-10:20	여성호르몬 치료	관동의대 윤현구
10:40-11:20	칼슘과 비타민 D	관동의대 한기욱
11:20-12:00	골다공증의 진단	경희의대 김덕윤

III 제26회 연수강좌

- 일정 및 장소: 2008년 8월 31일(일),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등록인원 : 202명

오전	뇌하수체 / 골대사 / 당뇨병	
09:30 - 10:00	흔히 보는 뇌하수체 질환	한양의대 김동선
10:00 - 10:30	골다공증의 표준 치료	가톨릭의대 이성수
11:00 - 11:30	노인 당뇨병의 관리	한림의대 유형준
11:30 - 12:00	개원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슐린 치료	서울엔도내과 홍성관
12:00 - 12:30	비만클리닉의 운영	서울의대 조영민
오후	갑상선 / 부신	
13:30 - 14:00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스테로이드 남용)	강원의대 김상욱
14:00 - 14:30	남성호르몬 치료	부산의대(비뇨기과) 박남철
15:00 - 15:30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진단	대구라파엘의원 윤현대
15:30 - 16:00	갑상선 검사의 해석	성균관의대 정재훈

III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 2008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7일 ~ 8일(금,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
- 등록인원 : 395명

- 11월 7일(금) -

09:00-09:50	내분비 증례토의	좌장: 이태희
	McCune Albright Syndrome (MAS)	경북의대
	부갑상선암의 피하조직 전이	부산의대
10:10-12:10	신경내분비연구회 Symposium	좌장: 김선우/김성연
	Potential Application of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II in Clinical Research	고려대 성재영
	New Concept in Acromegaly Management	Koji Takano (Univ. of Tokyo, Japan)
	Rat Prolactin Promoter Activity is mediated via a Balance of PPAR-gamma Binding Protein and Co-repressors differentially Interacting with Ets-1 and Pit-1	경상여대 함종렬
	Role of Hypothalamic Angiotensin Like Peptide-4 in the Regulation of Food Intake and Body Weight	울산의대 김민선

13:10-15:30	학연산 Symposium - 실험동물 모델의 응용	좌장: 유경자/김광원
	Transgenic and Knock-out Analysis in Cardiovascular Disease	이화대 오구택
	Mouse Metabolic Phenotyping Center in Metabolic Research	가천의대 최철수
	안드로젠-에스트로젠 대사 관련 호르몬들의 패턴변화 연구	KIST 윤창노
	동물모델의 관리 및 Breeding Strategy	오리엔트바이오 김수현
15:50-16:50	Meet the Professor	
	[A room]	진행 및 사회 - 김동선
	갑상선 분화암의 관리	서울의대 조보연
	Role of Endocrinologist and Neurosurgeon in the Treatment of Pituitary Tumor	연세의대 김선호
	[B room]	진행 및 사회 - 박석원
	부신질환	서울의대 김성연
	Osteoporosis	연세의대 임승길
	[C room]	진행 및 사회 - 박용수
	인슐린 저항성	서울의대 박경수
	당뇨병의 혈당관리: 인슐린 치료를 중심으로	인제의대 이병두

- 11월 8일(토) -

08:20-09:50	Symposium (I) [A Room] - Cell and Molecular Biology of Beta Cell Function	좌장: 김영건/김용기
	Beta Cells Preservation Using GLP-1 and Its Analog	울지의대 김병준
	Combination of Shotgun Proteomics with Microarray Reveals Altered Expression of Proteins in Pancreatic β -cell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익순
	Beta Cell Replacement for Treatment of Diabetes	가천의대 전희숙
08:20-09:50	Practice in Endocrinology [B Room]	좌장: 최영길/강성구
	인슐린 감수성 지표의 측정 및 임상적 이용	아주의대 김대중
	까다로운 갑상선 기능검사 결과의 해석	전남의대 강호철
10:10-11:00	Plenary Lecture	좌장: 김기수
	Bone and Immune System Hiroshi Takayanagi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 Japan)	
11:00-12:30	Symposium (II) [A Room] - Update in Thyroid Autoimmunity	좌장: 조보연/송영기
	Innate Immune Activation and Thyroid Autoimmunity	Koichi Suzuki (NIID, Japan)
	New Perspective in the Therapy of Thyroid Autoimmunity	Cesidio Giuliani (Univ. "G. D'Annunzio" Chieti-Pescara, Italy)
	Regulatory T Cell in Graves' Disease	울산의대 김은숙
11:00-12:30	Symposium (III) [B Room] - New Insights into Insulin Resistance	좌장: 최동섭/박성우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for Fat-induced Insulin Resistance	가천의대 최철수
	Role of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 in Insulin Resistance	경북의대 정남호
	Exposur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Insulin Resistance	서울의대 임 수

13:40-14:10	Presidential Lecture	좌장: 김성연
	폐경골다공증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 표적의 발굴	울산의대 김기수
14:10-14:40	남곡학술상 시상 및 발표	좌장: 민현기
	신장이식 후 당뇨병을 통한 당뇨병의 유전자 연구	연세의대 강은석
14:40-16:10	Symposium (IV) [A Room] - Recent Issues on Osteoporosis	좌장: 손호영/김보완
	New Guideline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가톨릭의대 강무일
	Hot Issues on Osteoporosis Treatment: Over-suppression and ONJ	아주의대 정윤석
	Novel Therapeutic Targets for Osteoporosis and Clinical Applications	관동의대 한기욱
14:40-16:10	Symposium (V) [B Room] -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좌장: 김선우/차봉연
	Serum Lipid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Men and Women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Innate Immune Response to Oxidized LDL in Atherogenesis	바이엘코리아 장미경
	뇌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이화의대 김용재



기타 행사

임원 Workshop 및 신년회

- 일시 및 장소 : 1월 3일(목) 18시, 신라호텔 비즈니스 센터
- 일정표
 - 18:00 ~ 19:00 학회 향후진로 _ 총무이사 서울의대 신찬수
 - 19:00 ~ 20:00 학술지발전 방향 _ 간행간사 한림의대 김두만
 - 20:00 ~ 21:00 토론

간행위원회 Workshop

- 일시 및 장소 : 3월 15일(토) 10시, 학회 사무실
- 일정표
 - 10:30 ~ 11:00 학진 등재지로서 대한내분비학회지가 보완해야할 것들 _ 서울의대 김상완
 - 11:00 ~ 11:30 CrossRef/DOI 등의 개념과 내분비학회지 _ 고려의대 김신곤
 - 11:30 ~ 12:00 대한내분비학회지의 Medline 등재를 위한 제언 _ 한림의대 김두만

제152차 학술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26일(수) 오후 6시~, 삼성의료원 암센터 지하1층 세미나실
- 증례발표
 - 소속 및 발표자 : 안산 한도병원 내분비내과, 양철균
 - 제목 : On Unrarity of Latent Cobalamin Deficiency : Diagnostic pitfalls based on 7 cases of latent Cobalamin deficiency & an adult type pernicious anemia
 - 소속 및 발표자 : 연세의료원 내분비내과, 김정민
 - 제목 : Calcimimetic Use in Primary and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 연구세미나
 - 소속 및 발표자 : 연세의대 생화학교실 박상욱
 - 제목 : The role of PCSK9 in modulation of lipoprotein homeostasis

제153차 학술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30일(수) 오후 6시~,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별관 지하1층 강당
- 증례발표
 - 소속 및 발표자 :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내분비내과, 이설라
 - 제목 : primary liver gastrinoma가 진단된 제 1형 다발내분비선종증
 - 소속 및 발표자 :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연
 - 제목 : 티록신결합글로불린 완전결핍증과 병발한 그레이브스병 1예
- 연구세미나
 - 소속 및 발표자 :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직
 - 제목 : Chemokine and its receptor in the pituitary

보험행위원회 Workshop

- 일시 및 장소 : 6월 23일(월) 18시, 밀레니엄호텔 토파즈룸
- 일정표 :
 - 18:00-18:30 상대가치 전면개정과 발전방향 _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 김영재
 - 18:30-19:00 포괄수가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_ 충북의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 강길원
 - 19:00-19:30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보험위원회의 역할 _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이비인후과 권기환
 - 19:30-20:00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 발전 방향 _ 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김대중

제154차 학술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27일(금) 18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연구동 GSK 홀
- 증례발표
 - 소속 및 발표자 :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내과 강호철
 - 제목 : A case of congenital hypoparathyroidism associated with involuntary movement disorder
 - 소속 및 발표자 : 전북의대 내분비내과 진홍용
 - 제목 : NK-T cell adrenal lymphoma diagnosed with delay due to mimicking adrenal hemorrhage
- 연구세미나
 - 소속 및 발표자 : 전북의대 생화학교실 박병현
 - 제목 : Keap1 eye on the Nrf2 and SIRT1 as Targets for type 1 diabetes

제155차 학술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9월 24일(수) 18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1세미나실
- 증례발표
 - 소속 및 발표자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동우
 - 제목 : 심한 저혈당을 동반한 Hemangiopericytoma 1예
 - 소속 및 발표자 :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단현경
 - 제목 : Cushing's Syndrome caused by Thymic Carcinoid
- 연구세미나
 - 소속 및 발표자 : 울산의대 약리학교실 김승환
 - 제목 : Metabolic function of transcriptional coactivator ASC-2/NcoA6

신경내분비연구회 포럼

- 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 3일(목), 인천하얏트 리젠시호텔

Session I	Update of Hypothalamus and pituitary Research (미국 내분비학회 review)	좌장 : 서울의대	김성연
17:05-17:20		서울의대	이은경
17:20-17:35		고려의대	김희영
Session II	Special lecture	좌장 : 서울의대	김경진
17:35-18:05	1. Clinical epidemiology and current treatment modalities of acromegaly in Japan		
	Akira Shimatsu (Kyoto University)		
18:20-18:40	2. The role of aquaporin-2 in nephrogenic diabetes insipidus	경북의대	권태환
Session III	Clinical case conference	좌장 : 관동의대	윤현구
18:40-19:00	1. Clinical characterization of acromegaly in Korea	경희의대	김성운
19:00-19:20	2. Two cases of primary CNS lymphoma involving hypothalamo-pituitary area		
		아주의대	정윤석



2008년도 수상자 명단

수 상 내 역	소 속 및 성 명	연 구 제 목
연구본상 수상자 (1명)	관동의대 내분비내과 한기욱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골소실의 기전에 대한 연구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10명)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김원구	갑상선 암세포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or receptor- δ (PPAR- δ) 활성화에 따른 세포의 성장의 변화
	메리놀병원 내분비내과 석지혜	치료받지 않은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폐 고혈압에 대한 연구
	을지의대 내분비내과 조영석	갑상선암에서 BRAFV600E에 의한 metabolic remodeling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남지선	당뇨병전기 환자에서 Pioglitazone이 산화스트레스 및 조기 동맥경화증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박세은	제2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에서 복부지방 분포와 새로운 아디포카인 omentin-1과의 연관성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김주영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위험인자 연구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조화영	부신 종양 발생에서 Wnt 신호 전달 경로의 역할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조선욱	골다공증 치료의 표적으로서 Kremen의 역할 규명 및 Kremen 항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골다공증의 치료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김경원	갑상선호르몬과 Xenobiotic Nuclear Receptor CAR (Constitutive active/androstane receptor)가 간세포 증식에 미치는 상호 작용 및 역할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김진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안드로겐 수용체의 CAG repeat 유전자 다형성과 남성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 및 부작용의 관계 규명
남곡학술상 수상자 (1명)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강은석	A Polymorphism in the Zinc Transporter Gene, SLC30A8, Confers Resistance against Posttransplantation Diabetes Mellitus in Renal Allograft Recipients
국외학술상 수상자 (1명)	국립암센터 내분비내과 김정민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does not Predict Malignancy in Thyroid Nodules Cytologically Diagnosed as Follicular Neoplasm
국내학술상 수상자 최우수상 수상자 (1명)	관동의대 내분비내과 김세화	인간 부갑상선 호르몬의 골 형성 촉진 작용과 Wnt/ β -catenin 신호 전달 체계와의 관련성 규명
우수상 수상자 (3명)	국립암센터 내분비내과 김정민	FRTL-5 세포의 성장 및 세포자연사에 대한 Wnt-1의 영향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김은숙	그레이브스병에서 조절 T 세포에 의한 병원성 자가항원반응성 CD4+ T 세포의 억제효과
	한림의대 내분비내과 한재필	갑상선 유두암 원발 조직과 재발된 림프절 전이 조직에서 Retinoic Acid Receptor β 단백질 발현의 임상적 의의
트래블 그랜트 (7명)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노태웅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이승훈
	포천중문의대 내분비내과 이여경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이은경
	중앙의대 내분비내과 이승은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이지인,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정지윤



회의 및 모임

고문위원회

- 1차 회의 - 4월 25일(금) 18시, 신라호텔 팔선
- 2차 회의 - 10월 21일(화) 18시, 신라호텔 팔선

평의원회

- 1차 회의 - 5월 15일(목) 오후 6시,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
- 2차 회의 - 11월 7일(금) 12시 10분,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 8층 탐라홀

이사회

- : 각 위원회 업무보고 및 기타 안건
- 39차 회의 - 2월 20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 40차 회의 - 4월 2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 41차 회의 - 6월 4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 42차 회의 - 8월 20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 43차 회의 - 10월 1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 44차 회의 - 12월 3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학술위원회

- 1차 회의 - 1월 29일(화)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건 : 춘계학술대회 및 International session 진행 준비의견
- 2차 회의 - 4월 14일(월) 18시, 학회 사무실
안건 : 춘계학술대회 중간점검
- 3차 회의 - 5월 16일(금) 17시 40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안건 : 추계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준비의견
- 4차 회의 - 11월 7일(금) 15시 30분, 학회 사무실

- 안건 : 14th AOCE 초청연자 논의 및 09 춘계학술대회 준비의 건
- 5차 회의 - 12월 18일(목) 19시, 한우리(논현동)
안건 : 2008 행사 마무리 점검

수련위원회

- 1차 회의 - 1월 11일(금)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건 : 신년모임 및 사업계획, 25회 연수강좌 준비의 건
- 2차 회의 - 3월 13일(금)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건 : 6회 전임의 연수강좌 준비, 춘계연수강좌 중간점검, 위원 해외연수
- 3차 회의 - 5월 23일(금) 19시, 일식당 간자(서초동)
안건 : 전임의 연수강좌 중간 점검 및 추계연수강좌 기획
- 4차 회의 - 11월 24일(월) 19시, 학회사무실
안건 : 2008 행사 총 점검

연구위원회

- 1차 회의 - 1월 24일(목)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건 : 2008년도 신년모임 및 사업계획, 회귀 질환등록 사업의 건
- 2차 회의 - 4월 17일(목) 18시, 학회 사무실
안건 : 2008 연구본상 및 젊은연구자상 심사, 회귀질환 등록사업 관련 검토의 건
- 3차 회의 - 6월 26일(목)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건 : 회귀질환 등록사업 진행 및 학연산 심포지엄 준비의 건

간행위원회

- 1차 회의 - 1월 17일(목)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 안전 : 23권 1호 편집회의, CrossRef 참여 논의,
Workshop 준비의 건
- 2차 회의 - 3월 15일(토) 12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전 : 23권 2호 편집회의
 - 3차 회의 - 5월 17일(토) 12시 30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
안전 : 23권 3호 편집회의, Medline등재 준비관련 논의,
Manuscript editor 필요성 논의
 - 4차 회의 - 7월 17일(목)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23권 4호 편집회의, 치료지침서 제작 진행, 2008
국내학술상 심사의 건
 - 5차 회의 - 9월 25일(목)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23권 5호 편집회의, Medline 등재 준비의 건,
학진 발전기금 신청 준비
 - 6차 회의 - 12월 4일(목) 18시 30분, 홀리데이인 서울 한식당
이원
안전 : 23권 6호 편집회의

보험위원회

- : 의사협회, 내과학회, 심평원등의 기관에서 요청된 보험관련
공문 심사 및 처리(이메일 또는 우편) 외
- 1차 회의 - 1월 8일(화) 18시 30분, 메드포갈릭(공덕점)
안전 : 내분비기능검사 책자발간 관련 점검 및 보험공문
처리건 외
 - 2차 회의 - 12월 29일(월) 18시 30분, 신라호텔 팔선
안전 : 2008년 업무 정리 보고

홍보위원회

- 1차 회의 - 3월 5일(수)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전 : 홈페이지 관리/운영, 피노키오의 꿈 사이트 상단
페이지 관리, 말단비대증 캠페인 건
- 2차 회의 - 6월 20일(금) 6시 30분, 팔레스호텔 일식당
다봉
안전 : 소식지 및 회원명부

- 3차 회의 - 8월 4일(월)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소식지 창간호 제작 중간 점검
- 4차 회의 - 8월 18일(월)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소식지 창간호 제작 중간 점검
- 5차 회의 - 10월 10일(금)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2차 소식지 제작준비, 피노키오의 꿈 사이트관리
방안모색
- 6차 회의 - 11월 18일(화) 18시 30분, 학회사무실
안전 : 2차 소식지 제작 중간 점검
- 7차 회의 - 12월 22일(월) 18시 30분, 어도(논현동)
안전: 2008년도 업무 결산

국제협력위원회

- 1차 회의 - 3월 17일(월) 18시 30분, 학회 사무실
안전 : 2007 사업결과 보고, 2008 사업 준비 토의
- 2차 회의 - 12월 1일(월) 19시, 스이젠(반포동)
안전 : 2008년 사업 결과 보고

총무위원회

- 2008년도 기업설명회 - 1월 15일(화) 17시, 한국 사회복
지회관 6층 소회의실
- 추계행사 답사 - 2월 15(금)~16일(토), 제주
- 1차 운영회의 - 3월 4일(화) 18시, 학회 사무실
안전 : Satellite 결정 및 연간행사 일정 검토 외
- 2차 운영회의 - 4월 6일(일) 12시 30분, 백범기념관
안전 : 춘계학술대회 참여 및 준비의 건
- 춘계학술대회 BOOTH 추첨 - 5월 13일(화) 17시, 학회
사무실
- 3차 운영회의 - 5월 17일(일) 13시 40분, 그랜드힐튼호
텔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 홀
- 4차 운영회의 - 8월 31일(일) 13시 30분,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안전 : 추계학술대회 참여 및 준비의 건
- 추계학술대회 BOOTH 추첨 - 10월 29일(수) 16시, 학회

사무실

- 5차 운영회의 - 11월 28일(금) 18시, 고베 켄뻬이(혜화)
안전 : 2008 행사 총 점검

기 타

- 신경내분비연구회
- 1차 회의 - 3월 14일(금) 18시, 학회 사무실
안전 : 차기 회장 선출

- 2차 회의 - 4월 23일(수) 18시, 학회 사무실
안전 : 임원 및 위원 상견례, 정관 토의, 2008년도 활동
계획 및 재무 현황보고
- 3차 회의 - 7월 3일(목) 15시, 하얏트리젠시호텔
안전 : 추계행사 준비의 건
- 말단비대증 TFT 모임
- 1차 회의 - 4월 28일(월) 19시, 학회사무실

회원 동정

손호영 교수

차기 대한내분비학회 회장으로 가톨릭의대 손호영 교수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1년 동안 학회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손호영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전임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승길 교수

차기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 연세의대 임승길 교수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2년 간 대한내분비학회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보완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회장으로 경북의대 김보완 교수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1년 동안 대한당뇨병 학회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해외 연수

성명 및 소속	연수 지역 및 대학명	기 간
김태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2008년 7월 1일 ~ 2009년 6월 30일
이유미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미국, 인디애나,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dianapolis	2008년 6월~
정인경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내분비내과)	미국, 보스턴, Joslin diabetes center	2008월 3월 ~2009년 12월 예정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 호 영 가톨릭의대



우리 대한내분비학회는 정식 학회로 발족되기 전에는 당시 내분비학을 전공하는 많지 않은 전문의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의 가칭 “내분비연구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관련 중례와 연구결과를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후반으로 기억되며 그 당시에는 내과전공의와 임상강사 신분으로 매달 열심히 참석하여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극받으면서 내분비학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연구회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관심 있는 참여자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내분비학회 창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현 명예회장이신 민현기 교수님을 중심으로 민병석, 최영길, 이태희, 허갑범 교수님 등이 주축이 되시어 드디어 1982년 서울대학교 지하 강당에서 대한내분비학회 창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09년은 어느새 학회 창립 26년이 되는 해가 되었고 내분비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30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1970년 후반 당시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는 우리학회에 젊은 활력을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학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회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간에 창립 원로 교수님들과 지난 30여년간 한결같이 우리학회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봉사하여 주신 역대 회장,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날 몰라보게 성장하고 발전된 대한내분비학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학회는 그간의 국내에서의 발전과 성장을 토대로 이제는 국제사회로 진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모두 다시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 우리학회를 한 단계 도약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학회의 장점이 되면서 동시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내분비학의 특성입니다. 즉 내분비학과 내분비질환을 단일 영역이나 단일질환이 아닌 다양한 영역과 질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내분비질환이 각 질환별 세부전공 분야로 다시 나누어져 국내 내분비관련 학회만 해도 지금까지 당뇨병학회, 핵의학학회, 갑상선학회, 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비만학회, 임상영양학회 등의 다양한 분과학회로 세분화되어 해당 분야별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이러한 학문영역의 세분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임상질환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핵가족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분비학회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국내 내분비관련 세부학회의 창립회원, 책임자 및 회원들 역시 모두 우리 대한내분비학회의 창립회원이고 책임자이며 또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학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앞으로의 우리학회와 내분비학의 앞날은 틀림없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추석날과 설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듯이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 임원진들과 회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우리 학회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고 더 넓은 국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학회 사랑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12

신임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손 호 영

존경하는 대한내분비학회 회원 여러분,

임 승 길 연세의대



무자년 2008년도 이제 몇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대한내분비학회를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던 김성연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 오는 2009년은 우리학회가 “내분비 집담회”로 시작한 1979년부터 산정하여 3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대한내분비학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학술집단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원로 교수님 및 회원 여러분의 본 학회에 대한 끊임 없는 애정과 헌신 및 봉사에 의한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수 많은 새로운 도전이 있고, 이제 우리 학회는 지난 30년을 되돌아 보면서 다가오는 30년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신임 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서 저는 엄숙한 역사적 소명 앞에 무한 책임 및 맡은 바 의무를 다할 것을 회원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신임 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서 향후 2년간 학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 1) 학회 이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소임이 “대한내분비학회의 중흥” 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중흥을 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더불어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원칙 중심으로 학회 회원 모두에게 학회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향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자원 (재원 및 재원 이외의 요소)의 분배에 있어서 효율을 중시하고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교환과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3) 대/내외적으로 닥칠 수 있는 돌변 위기상황에 대하여 이사장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의 문제들을 찾아 시기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미봉책에 가까운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책 즉 자유주의적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평등주의적 정책이나 제도 관행을 수선 하고 자유주의적 정책, 제도 그리고 관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 가장 우수한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서열을 두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있어서 불협화음이 바깥으로 지나치게 튀어나가지 않고 내부 조정 기능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신규간의 조화, 그 간 학회 일에 관여하였던 분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사이의 조화를 만들고 시스템으로 학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인 저와 임원진이 회장님을 모시고 향후 2년 간 학회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

신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임 승 길

JANUVIA™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최초로 승인된 새로운 계열의 경구용 치료제

NEW

Trademark of Merck & Co., Inc., Whitehouse Station, N.J., U.S.A.

‘혈당기와 내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똑똑한 혈당 측정기 - 원터치 울트라

혈당은 열심히 재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신다구요? 이제 원터치 울트라와 원터치 당뇨관리 소프트웨어(OTDMS)를 만나보세요. 혈당을 잴 후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알아서 분석해줍니다.

혈당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식사조절도 쉽게, 치료효과도 한눈에!

컴퓨터와 만나서 똑똑해진 원터치 울트라 - 혈당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 ▶ 원터치 혈당측정기는 전국 의료기상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 원터치 당뇨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가까운 병원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및
고객서비스 센터

080-555-4499
www.onetouch.co.kr
한국콘슨앤드콘슨메디칼(주)



ONE TOUCH
건강한 생활의 시작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선생님과 동국제약이 함께 합니다!

동국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피오스타(Pioglitazone HCl)**” 출시를 통해, 해외 ETC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국내에 선보입니다. 동국제약은 이미 파미레이(조영제), 로렐린데포(항암제), 포폴(전신마취제) 등 자체 개발한 전문의약품을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인사돌, 오라메디, 복합마데카솔 등 우수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 : X-ray 조영제 파미레이의 원료 iopamidol, 유럽의약품 품질위원회(EDQM) 품질인증 획득

2005년 :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ATC) 지정 (펩타이드 의약품의 장기저장성 제제화 기술)

2007년 : 2000만불 수출달성 (유럽, 일본 등 세계 50여개국 수출)

피오스타정

- 단독·병용요법으로 지속적이고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나타냅니다.¹⁻⁷
-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⁸
-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감소시켜 줍니다.^{1-6, 9-11}
-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¹⁰⁻¹¹
- 복용이 간편합니다.¹²

Insulin sensitizer

피오스타정
(염산피오글리타존)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97-8 동국빌딩
■수신자 부담전화 : 080-777-5678

www.dkpharm.co.kr

References

1. Diabetes Care. 2000;23(11):1605-1611.
2. JAMA. 2006;296(21):2572-2581.
3. Clin Ther. 2006;28(5):679-688.
4. Clin Ther. 2000;22(12):1395-1409.
5. Clin Ther. 2005;27(5):554-567.
6. Int J Clin Pract. 2002;56(4):251-257.
7. Int J Clin Pract. 2004;58(2):192-200.
8. J Clin Endocrinol Metab. 2003;88(4):1637-1645.
9. Coron Artery Dis. 2001;12(5):413-23.
10. J Clin Pract. 2007;61(Suppl. 153):20-27.
11. Curr Med Res Opin. 2006;22(Suppl.2):S39-48.
12. Horm Metab Res. 2002;34:S89-595.